

高麗鑄金匠考

韓仲紱와 그의 作品

朴 敬 源

一、머리말

一般的으로 우리나라 工藝品에는 만든 사람의 이름이 밝혀진 경우가 극히 稀貴하나 靑銅으로 鑄造된 梵鐘 飯子 香爐 器皿 같은 佛具들에는 그 자체에 銘文을 가진 作品도 적지 않다.

이러한 銘文은 대개 年紀 造成因緣 使用材料 寺院名關係俗名과 때로는 여기에 鑄金匠의 이름까지 銘記되어 있는 것도 흔히 볼 수 있다. 韓國金石遺文①에는 이러한 有銘 金屬遺物로 梵鐘 六八、香垵 三四、飯子 四七、器皿 五五、總二〇四點을 收錄하였는데 그중에서 高麗까지의 鑄金匠의 이름이 밝혀진 作品은 六二點을 헤아릴 수 있다.

이러한 六二點의 作品中에서 同一人의 作品으로서는 韓仲紱의 三點이 唯一한 例이고 나머지는 各各 製作者가 다르므로 결국 여기에 韓仲紱 外에 總六〇名의 鑄金匠의 이름이 밝혀지는 셈이다.

韓仲紱의 作品은 이 三點과 釜山市立博物館의 展示品中에서 그 年代가 確實한 二點이 새로 發見되어 그의 作品은 다음과 같이 五點을 記錄하게 되었다.

(1) 崇慶二年銘 高嶺寺 飯子..高麗 康宗 二年(一一二四) 侍衛軍 仲紱

- (2) 靑林寺 銅鐘(現在 來蘇寺) ..高麗 高宗 九年(一一二二) 匠 韓仲紱
- (3) 戊戌銘 神龍(寺?) 小鐘 ..高麗 高宗 二年(一一三三) 大匠 韓仲紱
- (4) 戊戌銘 福泉寺 飯子 ..高麗 高宗 二年(一一三三) 別將 同正 韓仲紱
- (5) 壬子銘 安養社 飯子(現在 玉泉寺) ..高麗 高宗 三年(一一二五) 別將 同正 韓仲紱

將 同正 韓仲紱
그의 作品을 이렇게 年代順으로 整理하여 보니 韓仲紱가 그의 三九年 間 거의 平生을 通한 鑄金匠으로서의 人生이 여기에 集約된 느낌이 없지 않다.

가령 그가 二〇歲頃에 宮主房의 侍衛軍으로서 高嶺寺의 飯子를 鑄成하였다고 假定하더라도 安養社 飯子를 造成한 高宗 三九年에는 이미 六〇歲를 넘은 老匠이었음이 틀림 없다.

그 동안 그의 身分은 一介 軍士에서 匠、大匠、別將、別將 同正으로 匠人으로서는 비교적 順調롭게 出世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그의 作品만이 유독 五點이나 햇빛을 보게 된 것도 결코 偶然的의 結果로만 볼 수 없다.

그만큼 一生을 통하여 많은 作品을 남긴, 남길 수 있었던 匠人이었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一介 匠人으로서 別將 同正이란 最高의 官職에 까지 昇進하는 特別한 待遇를 받고 ② 그 官職 姓名을 作品에 새긴만한 功지를 가진 匠人의 한 사람이었다고 추측되는 것이다.

筆者는 우선 韓仲紱의 作品 五點을 통하여 鑄金匠으로서의 그의 一生을 追跡하여 보고자 한다.

그의 一生이 다른 모든 鑄金匠의 社會를 代辯하지는 못하더라도 高麗 鑄金匠들의 實像과 그들의 社會를 엿볼 수 있는 端緒라도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二、韓仲紱의 作品

釜山市立博物館에는 前記 福泉寺의 飯子、戊戌銘 神龍(寺)小鐘과 三



圖 1. 崇慶二年 高嶺寺飯子

脚의 有蓋烏銅香爐·雙獅子 燈臺臺等 優秀한 高麗 靑銅製品들이 展示되어 있다.

이 遺物들은 이곳 金渭祥氏의 所藏品으로 일찍이 江原道 地方에서 一 括 出土된 것으로 전하여 오던 것이다. 그 중의 鐘과 飯子二點이 그 刻 銘에 의하여 韓仲岐의 作品으로 判明된 것이고 香爐와 雙獅子 燈臺臺는 無銘이다.

이제 韓仲岐의 作品 하나 하나를 檢討하면서 鑄金匠으로서의 그의 行 跡을 살펴 보기로 한다.

崇慶二年 高嶺寺 飯子(現在 日本 國立東京博物館)

表面 徑三八·五cm 裏面 口徑三〇·七cm 側面 幅九·五cm

一般形으로 表面 四重圈의 中央에는 七顆의 一二瓣 蓮華文이 있고 素 文中圈에는 墨書 梵字가 周回되었으며 外周에는 雲文이 陽刻되어 있다.

로 記載되어 있다. ③

銘文은 側面에 一行으로 陰刻되어 있다.

崇慶二年甲戌三月五日壽寧宮主房侍衛軍公節亦 聖壽天長國

泰民安兩主各保千秋兼亡妻聰明女離苦得樂聞聲悟道之

願 鑄成飯子一隻重三十斤懸於高嶺寺永充功德者同願

同寺住持惠成

同房保衛軍仲岐

이 飯子는 銘文에서 보다시피 壽寧宮主房의 侍衛軍 公節(亦)이 宮主 兩位와 亡妻 聰明女를 위하여 造成 高嶺寺에 施納한 것이다.

公節亦의 三字가 姓名인지 公節이(亦)라는 吏讀인지 잘 모르겠다.

高嶺寺 所在未詳

壽寧宮主 康宗 一女. 思平王后 所生 康宗元年封爲宮主 適河源公(高麗

史 卷九一 傳列四公主) 同房 侍衛軍 仲岐

側面 中央에는 太細帶條 가 있고 그 線上에 三耳 가 있다. 重量이 約九·八 kg이라 하며 大形의 遺物 로서 形態完好하고 彫飾 이 또한 端正하여 優品の 하나이다.

崇慶二年 甲戌은 一年 이 錯誤되어 있으나 金宣 宗二年 高麗 康宗 二年 (一一三三) 癸酉로 推定된 다.

此品은 一九五三年度日 本 東京博物館의 新收品 인 바 「近年의 將來品」으

同寺住持惠成과 併記하여 同房侍衛軍이라 한 것은 壽寧宮主房을 指稱한 것이다. 여기에 「韓」의 姓을 새기지 않은 것은 侍衛軍士로서 아직 身分이 낮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보면 「侍衛軍公節亦」도 「公節」이 이름 같이 생각되기도 한다.

侍衛軍士

齊安公偕……仁宗九年卒時李資謙用事奏貶帶方大原二公……偕恐不免

請去諸侍衛軍士杜門不接賓客終免於禍(高麗史卷九〇列傳宗室)

侍衛軍은 高麗史에 散見되는 軍制上 特定部隊의 이름이나 軍人의 身分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고 宮主房이나 宗室의 居處를 侍衛하는 軍士이다. 公節이나 仲紱는 壽寧宮主房에 配置되어 軍役을 치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靑林寺鐘(來蘇寺 高麗銅鐘)

全北 扶安郡 山內面 來蘇寺 所藏

總高一〇三cm 口徑六七cm

貞祐十年 高麗 高宗 九年(一一二二)

鐘身에는 上下에 肩帶와 口緣帶를 돌리고 그 안에 優麗한 唐草文이 刻明하게 陽鑄되었으며 肩帶 위에는 如意頭文과 유사한 立花形 裝飾이 솟아 있어 高麗鐘의 特色을 나타내고 있다.

肩帶 밑에는 四個所의 連珠文으로 구획된 乳廓이 있고 乳廓內에는 역시 唐草文이 있으며 그 안에 각각 突起된 九乳가 있다.

乳廓 밑에는 圓座밖으로 一二瓣蓮華로 장식된 撞座가 있다.

鐘身의 中央部 즉 乳廓과 乳廓 사이 밑에는 큰 꽃송이 위에 구름을 나타낸 雲上의 三尊이 陽鑄되어 있다. 本尊은 蓮華 위의 坐像이고 脇侍像은 立像이다. 모두 頭光을 갖추었고 雲尾가 길게 위로 솟고 있다. 구름 위에는 따로 바람에 휘날리는 寶蓋가 있어 장엄을 더하였다.

頂上에는 위에 珠形이 달린 甬筒이 있고 특히 머리가 큰 龍紐가 있는 바 모두 寫實的으로 表現되었다.

韓國鐘의 樣式을 잘 繼承한 梵鐘이며 形態나 彫飾이 아름다운 高麗銅鐘의 代表作이라 할 것이다.

撞座와 撞座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三種의 銘文이 있다.(文化財大觀寶物篇 下卷)

이 鐘銘에는 一·二次의 追刻이 있으나 그 중에서 여기에 必要한 原銘은 다음과 같다.

貞祐壬午六 月初七日邊山 靑林寺金鐘 鑄成入重七百斤 棟梁 道人虛白 道人宗之 匠韓沖紱

이 銘文에서는 韓仲紱의 「仲」字가 「イ」번 아닌 「γ」으로 읽을 수도 있도록 어중간하게 새겨져서 「韓國金石遺文」에는 「沖」으로 읽은 것 같다. 그러나 金刻의 경우 끝 끝이 흘러서 「イ」이 「ニ」字 비슷한 字劃으로 새겨질 수도 있겠고 또 仲과 沖을 混用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이 鐘의 鑄匠이 韓仲紱 그 사람임은 疑心할 餘地가 없을 것으로 본다.

韓仲紱는 前記 高嶺寺飯子를 製作한 八年 뒤에 「高麗銅鐘의 代表作」이라 할만한 이 鐘을 鑄성한 셈이다.

그동안에 身分도 侍衛軍士에서 「匠」으로 바뀌고 이와 같은 優秀한 作品을 鑄造할만한 技術者로 成長하였던 것 같다.

神龍(寺) 小鐘

總高二一·八cm 身高一六·八cm 甬筒高五·二cm

口徑一三·三cm

이름 그대로 小鐘이나 아담하게 잘 생긴 鐘이다.

鐘身/口徑 一二六·三 甬筒/鐘 三〇·九의 比率로 비교적 늘씬한 편이다.

製作이 아주 精巧한 편은 아니나 高麗鐘의 特色을 골고루 갖춘 佳作이라 하겠다.

龍紐는 S字形으로 크게 龍트림하여 前面으로 벌린 입에 如意珠를 물고 左前肢는 앞으로 치켜들어 四爪 사이에 亦是 如意珠를 받쳐 들었고,

前肢는 自然스럽게 後方으로 彎었다.

甬筒은 素文인데 그 上端에 四顆의 小珠가 붙어 있다.

鐘身의 上帶와 下帶는 다 같이 橫S字의 連續唐草文으로 장식하고 立狀帶는 △形에 가까운 蓮華文을 돌렸다.

乳廓은 前後左右에 四개를 配置하고 그 사이 사이의 鐘腹에 四菩薩像을 陽鑄하였다.

乳廓은 若干 梯形으로 위가 오무라진 S形의 唐草文帶를 두르고 그 안에 九乳를 넣었다.

乳는 蓮華座에 蓮蕾가 突出한 形式이나 蓮봉우리가 小形이기 때문에 圓珠에 가깝다.

四軀의 菩薩像은 모두 蓮華座 위에 合掌 跏趺坐한 坐像으로 相好와 寶冠 天衣 등이 비교적 刻明하게 浮彫되었다.

撞座는 下帶 위에 左, 右, 後 三方으로 배치하였다. 徑 一六cm의 圓形蓮房안에 六顆의 蓮子를 넣고 그 틀레에는 三角形에 가까운 八瓣의 重



葉蓮華文을 돌렸다.

鐘의 正面 빈 空間에는 撞座대신 鐘銘을 다음과 같이 陰刻하였다.

戊戌四月日鑄成」 横川地神龍小鐘」 大匠韓仲鉞

銘文은 字徑 一·二cm 陰刻으로서는 비교적 達筆이고 刻도 細勁하다.

戊戌四月日「戊戌」二字는 字劃이 若干 흐트러졌으나 戊戌로 읽는데는 別로 支障이 없다. 이 해는 高麗 高宗 二五年 西紀 一三三八年이므로 다음 달인 潤 四月은 蒙古軍이 慶州에 侵入하여 皇龍寺塔을 불태운 달이다.

이 鐘과 다음 福泉寺 飯子는 이와 같은 난리 直前に 鑄成된 것임을 알 수 있다.

横川地 江原道 横城郡

横川縣 本高勾麗横川一云於斯買 新羅景德王改名 曠川爲朔州領縣 高麗復稱横川仍屬後屬原州 恭讓王元年置監務 別號花田 (高麗史 地理

志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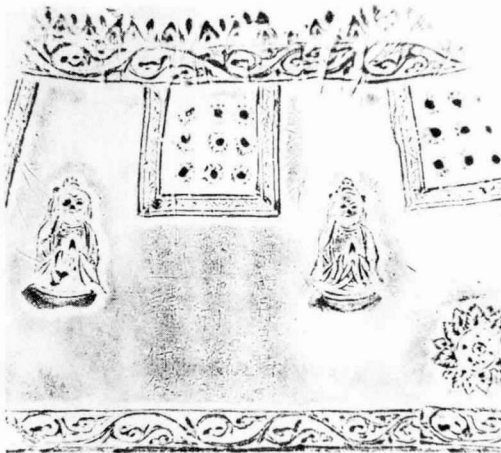


圖 2. 神龍(寺)小鐘

神龍小鐘

神龍寺 小鐘의 (小)字가 省略된 것 같다. (小)字가 「寺」字는 아니다. 小鐘으로 記銘한 것으로는 至大四年銘鐘(在佛)에 「藥師菴小鐘」과 丁丑銘小鐘(軍明浩 所藏)의 「丁丑三月日大師景鶴順□納小鍾重六斤四兩印」등 그 例가 적지 않다.

神龍(寺 또는 庵?)은 橫城 洪川地方에 있었던 鎔로 推側되나 未詳. 大匠 韓仲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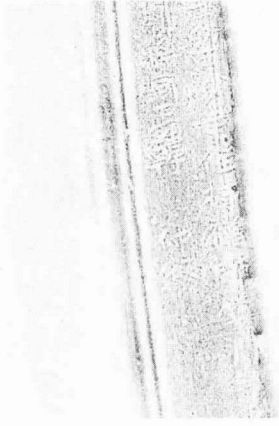
次項 福泉寺 飯子도 같은 해에 鑄成된 것인데 거기에는 別將同正韓仲鈸로 記名되어 있어 재미있는 對照를 보여주고 있다. 大匠에 대하여는 뒤에서 言及하기로 한다.

福泉寺 飯子

表面 徑 四一·〇 cm 裏面 口徑 三二·〇 cm 側面 幅 九·〇 cm



圖 3. 福泉寺飯子



一般形의 飯子로 鼓面을 四區의 同心圓으로 分割하여 三가닥의 太細組線을 두른 것은 他例와 다름이 없다.

中心圓(徑八·六 cm)의 子房에는 八顆의 蓮子와 八瓣의 蓮華文을 넣고 第二圓圈에는 一四葉의 重瓣蓮華文을 陽刻하였다.

第三圓圈은 素文이고 外周의 第四圓圈에는 五朵의 飛雲文을 배치하였다. 飛雲文은 二條의 波狀 曲線과 三개의 朶雲으로 構成한 優麗한 文樣인데 그 하나 하나의 구멍새가 조금씩 다르다.

側面은 中央部가 若干 불룩한데 거기에 鼓面과 같은 太細 三條線을 두르고 그 線上에 三耳를 달았다. 그러데 中心의 귀가 兩側 귀에서 等距離의 中央에 달리지 않고 約二 cm 가량 右耳 쪽으로 달려 있다.

銘文은 右耳의 바로 밑에서 부터 시작하여 側面의 右半部에 二行으로 陰刻하였다.

裏面은 幅 四 cm의 若干 傾斜진 비두리를 돌렸고 그 口緣部는 反轉하여 두툼해졌다. 이 飯子は 前記 高嶺寺 飯子와 크기와 形態彫飾 등이 거의 비슷한 作品으로 보인다.

今上 寶位 天長 普陽公 福壽 延長 天水 相國 趙廉 鄉 速離 苦海 受生 淨土 留沙寺 住持 禪師 學淵 今 生 死 病 後 世

離三界之愿以 茂代 四月日 鑄成 橫川縣地 福泉寺 飯子 重二十斤 鑄成者 別將 同正 韓 仲鈸

銘文은 字徑 一 cm | 一·二 cm 끝이 무딘 끝으로 새겨서인지 字劃이 비교적 굵은 편이다.

晉陽公 崔怡. 高宗二一年 封 晉陽侯 (高麗史 卷一二九 列傳 四二) 天水 相國 趙廉卿. 高宗一四年 右軍兵馬使 上將軍

同一五年 禮部尙書 (高麗史 卷二二. 世家 高宗). 天水는 天水郡(縣)을 指稱한 것으로 생각되나 趙廉卿을 天水侯로 封한 事實이 高麗史에 보이지 않는다. 天水縣은 그의 出生地인가?

留沙寺 禪師 學淵. 未詳

福泉寺 橫川縣(江原道 橫城郡, 洪川郡)에 있었던 절이나 寺傳 寺址 未詳

茂代四月日。다른 글자들은 字劃이 刻明한데 干支 二字에만 加劃이 있어 應동한 글자가 되어 있으나 「戊戌」의 誤刻임이 明白하다。
別將同正。(四·官匠의 社會 參照)

壬子銘 安養社 飯子

表面 徑 五五·〇cm 裏面 口徑 四二·〇cm 側面 幅 一四·〇cm
現在 慶尙南道 固城郡 玉泉寺所藏

銅製의 片面 一般型의 飯子이다.

裏面은 幅六·五cm의 斜面을 이루는 대가 돌려 있을뿐 안은 비어 있다. 장식은 없고 다만 口緣을 따라 細太의 돌기가 있을 뿐이다.

表面은 太細의 隆起된 線으로 四條의 同心圓을 그려 中心의 圓과 三區의 圓圈 각기 裝飾文樣이 彫飾 되었다.

中心圓(徑一六·五cm) 안은 蓮子 六顆의 子房으로 되었고 主위의 隆起線으로 표현된 重瓣蓮華가 있다. 다음의 圓圈內에는 彫飾이 없고 外周의 圓圈에는 隆起된 雙駒式 唐草文이 장식되어 있다.

側面은 中央에 太細隆起線이 있어 左右 二區로 區分하고 이 선 위에 卍지 三개가 달려 있다.

二區中 表面쪽에 다음과 같은 四行의 銘文이 陰刻되어 있다. (文化財 大觀 寶物篇)

高麗二十三王環甲之年壬子四月十二日在於京師工人之家中鑄成安
養社之飯子入重六十餘斤同願施主者

樞密院右副承宣孫挺烈尙書皇甫琦□校尙書兪承錫華嚴業三重勝壽
大選景興知識正之故上將軍奇弼善之故偶珍原郡夫人吳氏

郎將金伯龍之嘉偶樂浪郡夫人崔氏同文院錄事鄭常之嘉偶海陽郡君
金氏學錄未誼之嘉偶金氏比丘尼清惠等此根幹外鐫銖之單甚多故不

具錄

工人別將同正韓 仲紱 棟梁道人宗一負擔人上座普心 使用長存

高麗二十三王環甲之年。高麗二十三王은 즉 高宗이며 高宗은 明宗二

二年 壬子生이므로 그 環甲之年은 곧 高宗 三九年(一二五二) 壬子이다

樞密院 右副承旨 孫挺烈

高宗四十五年十二月壬寅……同知樞密院事 柳敬 皇甫琦 孫挺烈並爲

樞密院副使(高麗史 卷二四 世家 高宗)

元宗元年夏四月乙巳 同知中樞院事孫挺烈卒(同卷二五 世家 元宗)

尙書 皇甫琦

高宗三十二年冬十月壬午 遣新安公佺 大將軍皇甫琦如蒙古

高宗四十五年十二月壬寅 爲樞密院副使(前項)

忠烈王十一年六月庚子 門下平章事致仕皇甫琦卒。

(高麗史 卷三〇 世家 忠烈王)

□校尙書 兪承錫

高麗末 李朝初에 定員 以上으로 벼슬자리를 늘이거나 公事를 맡지

않고 이름만 가지게 할 경우 그 벼슬 이름 앞에 붙이던 말. 例 檢校

門下侍中 檢校政丞 등(國史大事典)

그러므로 圓校尙書로 봐서 無妨할 것이다. 兪承錫의 行績 未詳。

勝壽大選 景興知識 上將軍 奇弼善以下의 人名 未詳。

安養社 河東郡 靑岩面 所在(今廢)

安養寺 自蟾津東踰三嶺六十餘里有是寺 與五臺同稱勝利(東國輿地勝

覽 晉州牧 佛宇)

工人 別將同正 韓 仲紱

別將同正(四·官匠의 社會 參照)

同人 鑄成의 다른 銘文과의 差異는 鑄匠의 職姓名이 鑄成棟梁이나

負擔人上座 등 鑄成關係人名의 筆頭에 새겨져 있는 점이다.

三、鑄金匠의 身分

鑄金匠 人名表

文獻이나 金石文에 나타나는 鑄匠들의 呼稱(職名)은 多樣하고 時代에 따른 變遷도 相當히 複雜하다.

일찍이 新羅時代의 國家的인 大工事に 從事한 鑄匠들에게는 博士·伯士 같은 稱號와 거기에 相當한 官位까지 주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呼稱이 모든 鑄匠들에게 共通된 것은 아니었고 一部 鑄匠들은 匠·匠士·大匠 등의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하였으나, 高麗時代에 서는 前者는 차츰 사라지고 그 대신 大匠系統의 이름이 그 主流을 이루게 되는 것 같다.

그러다가 高麗 中期以後에는 여기에 校尉 別將 同正 등 一見 軍隊의 職名 같은 것까지도 混用하게 된다.

이러한 稱呼의 變化는 制度的 變化와 거기에 따른 身分의 異同이 反映된 現象으로 보겠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에 알려진 新羅以後 高麗末까지의 모든 鑄匠들의 職名과 姓名을 總網羅하여 그 呼稱의 差異가 그 身分과 어떠한 關係에 있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그 時代의 인 變遷을 보기 위하여 新羅時代까지 遡及하였고 또 便宜上 그들의 呼稱에 따라 크게 세 갈래로 分類 整理한 것이 다음의 一覽表이다.

A 博士(伯士·百士)

番號	職名	官位	姓名	作品名	年代
一	鑄鐘大博士	大奈麻	朴??	聖德大王神鐘	惠恭王七(七七一)
二	次博士	奈麻	朴資奈?	"	"
三	"	"	朴韓味?	"	"
四	"	大舍	朴貞岳?	"	"
五	伯(伯士)	(當寺)	覺知師	禪林院鐘	哀莊王五(八〇四)
六	成博士	水舍	安海哀	菁州蓮池寺鐘	興德王八(八三三)
七	"	"	哀外	"	"
八	大百士	"	羅州只未百士	古弥懸西院鐘	光宗一四(九六三)

B 大匠

番號	職名	官位	姓名	作品名	年代
一	大匠	大奈麻	架敏	窮興寺鐘	文聖王(八五六)
二	"	大奈麻?	溫衾	"	"
三	鑄大匠	"	位金	龍頭寺鐵鐘	光宗一三(九六二)
四	大匠	"	慶門	靑鳧大寺鐘	德宗一(一〇三二)
五	"	"	金水	"	"
六	副大匠	"	保只	戒持寺鐘	文宗一九(一一〇六五)
七	"	"	未亭	"	"
八	大匠	"	盧珎	仙岳寺鐘	文宗二〇(一一〇六六)
九	"	"	盧珎	重興寺飯子	肅宗八(一一〇三)
一〇	大匠	"	盧珎	川北觀世音寺鐘	睿宗二(一一〇七)
一一	"	"	李且	楊等寺半子	毅宗一四(一一六〇)
一二	"	"	李申	"	"
一三	"	"	李申	泰和二銘半子	神宗五
一四	"	"	李申	貞祐四年銘半子	高宗三(一一〇二)
一五	"	"	李申	奉業寺飯子	高宗四(一一二六)
一六	上大匠	"	夫金	"	高宗四(一一二七)
一七	大匠	"	阿角	"	"
一八	三大匠	"	景文	"	"
一九	大匠	別將同正	元清	貞祐六年銘飯子	高宗五(一一二八)
二〇	"	"	崔汶茂	月峰寺鐘	高宗(一一二八)
二一	"	"	仁美	利義寺飯子	高宗(一一三三)
二二	"	"	仁美	"	高宗(一一三四)
二三	"	"	庄美	"	"

番號	職名	官位	姓名	作品名	年代
參考	大伯士	及干	釋林典·道如	禪房寺塔誌石	憲康王(八七九)
"	伯士	"	琮鉉	寶林寺北塔誌石	景文王(八七〇)
"	鑄字助博士	"	臣連全	皇龍寺木塔刹柱本	高宗(八七二)

C、匠・其他

二一三	〃	〃	〃	韓仲鈸	神龍(寺)小鐘	高宗二五
二一四	〃	〃	〃	性即	至治二年藥師寺 禁口	忠肅(王)九
二一五	〃	〃	〃	崔□	文聖菴鐘	〃(三一三二)
二一六	〃	〃	〃	朴	長興寺鐘	恭讓王(四三二四)
二一七	〃	〃	〃	大	竹丈寺鐘	己丑銘(三九二)
二一八	〃	〃	〃	信	戊戌銘鐘	?
二一九	〃	〃	〃	十	〃	己亥銘
二二〇	〃	〃	〃	斧	頭正寺鐘	己巳銘
二二一	〃	〃	〃	及	〃	乙酉銘
二二二	〃	〃	〃	大	全州萃嚴寺半子	丙戌銘
二二三	〃	〃	〃	老	觀音寺飯子	?
二二四	〃	〃	〃	金	扶餘博物館小鐘	

番號	職名	官位	姓名	作品名	年代
一	匠	大舍	季生	皇福寺石塔	聖德王(七〇六)
二	〃	〃	關溫	金銅金利函	〃(二四)
三	昭南屯匠	〃	仕□	上院寺鐘	〃(七二五)
四	匠人	〃	高正	皇龍寺鐘	明宗八(一七八)
五	(鑄成)	〃	高正	金山寺香壇	神宗五(二〇二)
六	京良工	〃	韓宗守	蒲溪寺盤子	康宗二(二二二)
七	侍衛軍	〃	仲鈸	高嶺寺飯子	高宗九(二二二)
八	匠	〃	韓仲鈸	靑林寺鐘	〃(二二二)
九	〃	〃	七甫	大良坪觀音寺鐘	〃(二二二)
一〇	〃	別將同正	韓仲鈸	福泉寺飯子	〃(二二五)
一一	工人	〃	〃	安養社飯子	〃(二二五)
一二	〃	〃	延三	寂照寺飯子	忠肅王(三一三)
一三	〃	〃	崔家造	松林寺香壇	忠惠王(三三七)

二一四	刻標造成匠	洪廣大	至正四年銘金鼓	忠惠王五(三三四)
二一五	匠	有先	尙州安水寺鐘	丁巳銘
二一六	匠人	朗□	公州修淵院小鐘	戊寅銘
二一七	〃	洪主	丙寅銘禁口	
二一八	〃	黃光	月峯寺金鼓	己酉銘
二一九	〃	韓正	乙巳銘銅鐘	己酉銘
二二〇	〃	(刻)□□	五聖寺小鐘	
二二一	工匠	小斤吾末	聖福寺鐘	乙丑銘
二二二	銅匠	〃	石寺羅漢殿飯子	

A、博士・伯士・百士

新羅時代の博士라는 職名은 學問이나 文筆에만 局限된 것이 아니고 널리 各分野의 技藝에 通達한 技術者들을 包含한 呼稱임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聖德大王神鐘과 같은 學國的인 大役事를 擔當한 鑄金匠들은 博士, 次博士라는 職名과 大舍에서 大奈麻까지의 官位를 받은 官匠임이 分明하다.

興德王八年(八三三)에 鑄成된 靑州蓮池寺鐘의 경우도 靑州가 비록 地方이기는 하나 新羅九州의 하나로서 地方政治의 中心地이고 또 이 鑄鐘事業에 節州統 같은 높은 僧職者들이 關與한 것을 보면 地方으로서는 相當히 重大한 佛事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 從事한 成博士들은 大舍의 官位를 가진 鑄匠으로서 慶州의 官署나 아니면 州의 地方官에 所屬된 官匠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官匠이 地方에도 있었다는 例를 古弼縣西院鐘(光宗一四年, 九六二)에서 볼 수 있다.

伐「昭大王當縣聽規沙干」峻豐四年癸亥九月十八日古弼縣「西院鑄鐘記」徒人名疏同院主「人領玄和尚信嚴」長老曉玄上坐「欣直」父言□□

階級이고 職名임을 짐작케 하는 것이다.

高麗가 다른 分野와 마찬가지로 官匠들의 職名도 百七 大匠 등 新羅時代의 그것을 踏襲해 오다가 차츰 獨自의인 制度를 整備하면서 大匠 副匠 등으로 確定하여 以後 高麗末까지 계속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한다면 이와 같은 職制는 高麗가 官匠 制度를 法定할 때에 이미 新羅時代부터 내려오던 慣例를 그대로 法制化하였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前記 人名表에 대하여 若干 補充說明이 必要할 것 같다. 表 B에는 大匠이란 職名 위에 또 上大匠이 있고 아래로는 副大匠 三大匠으로 區分된 例가 보인다.

이것은 新羅의 大博士、次博士와 같이 職名이 아니고 같은 일에 關與한 大匠들 사이의 序列의 表示라고 생각 된다. 武散階의 給田規定에도 뚜렷이 大匠 副匠 雜匠人으로 區分되어 있어 가령 그 身分이 副匠일 경우에는 副大匠 三大匠으로는 쓰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은 例는 大匠 副匠이 엄연한 鑄匠들의 職名이었다는 反證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 사이의 序列이 들쭉 셋째라 하더라도 그 職名(位)이 같은 大匠이므로 副匠 三匠이라 하지 않고 上大匠 副大匠 三大匠으로 記銘한 것이다.

또 같은 B表 (4)(5)의 靑島大寺鐘의 陽刻 銘文에 대하여

太平十二年^在十二月日靑島大寺 鐘百七十斤大匠位金慶門棟 梁之吉 十四人戶長阮賢等

藤田亮策氏は「大匠位金慶則의 則字는 明 또는 門으로 보인다. 位字는 意味不明 大匠位의 用例는 보지 못하였다. 作字는 아니다」(4)라고 하였고 坪井良坪氏は「大匠位 金慶門」으로 읽고 「大匠位라는 表現은 他에 볼 수 없다. 金慶門은 그의 이름인가」라고 疑問을 두었다. ⑤

여기에 대하여 나의 所見으로는 鐘銘의 拓影으로 봐서도 則字보다는 門字에 가깝고 「大匠位金慶門」은 大匠 位金慶門의 二人 連名으로 보는 것이 無難할 것으로 생각 한다. 大匠의 이름을 두사람 連記한 例는 人名表 (B)에서 보다시피 그 例가 적지 아니하다.

僧 匠

大居士 大匠

新羅 高麗를 통하여 寺院에 所屬된 僧侶 身分의 各種 技術者(僧匠들)의 呼稱은 대체로 官匠의 그것을 따른 듯하다. 즉 新羅時代에는 伯士 또는 大匠의 두가지 이름이 併用되다가 高麗時代에 가서는 伯士系는 없었고 大匠이란 이름만 남게 된 것 같다.

禪林院鐘(哀莊王 五年、八〇四)의 銘文

…鍾成在僧當寺 覺知師…

의 僧는 伯士의 合成字이므로 鑄鐘伯士는 當寺의 覺知라는 僧匠이었다. 僧匠을 伯士라고 부른 例는 다른 技術分野에서도 볼 수 있다.

石匠의 경우 禪房寺塔誌石(憲康王 五年、八七九)은 大居士 釋林典道 如 두사람의 僧侶 石匠에 의하여 製作 되었다.

新羅末에 내려와서는 僧匠도 官匠과 마찬가지로 차츰 大匠이란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것 같다.

鑄金匠으로서 는 알맞는 例가 없으나 石匠의 경우는 海印寺妙吉祥塔記(誌石)에 大匠僧蘭交로 그 裏面의 雲陽臺吉祥塔記에는 匠士僧蘭交、僧 淸裕로 大匠·匠士의 呼稱을 同時에 混用한 例를 볼 수 있다.

그러다가 高麗時代에 내내 되서는 차츰 大匠으로 統一된 것으로 생각 된다.

人名表 (B)에서 僧侶 身分이 뚜렷한 것은 (24)大匠 道人性即(밖에는 確實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19)大匠 元淸은 貞祐六年銘 飯子の 銘文에 「助役孝文貞僧印」등 僧侶로 짐작 되는 사람들이 助役하였으므로 元淸도 僧匠이 아닌가 우선 指目할만 하다.

이 밖에도 表(B)의 大匠들 중에는 僧匠이 相當히 섞여 있을 것으로 推測되나 당장 이것을 가려낼 수가 없는 것이다.

私 匠(匠, 其他)

新羅 官匠들의 職名이 九世紀 後半부터 차츰 大匠으로 바뀌면서 高麗 時代에 내려와서는 制度上으로 굳어져서 鑄金匠 社會의 主流을 이루게 된 것은 前述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主流을 이룬 官匠群과는 좀 다른 鑄金匠들이 따로 있었다. 人名表(C)는 이러한 鑄金匠들을 뽑아 모은 것이다.

우선 그들은 博士나 大匠이니 하는 格式을 갖춘 이름이 아니고 匠、匠士、匠人、工人、良工 등으로 그 呼稱이 一定하지 않고 비교적 自由로운 이름을 띤 匠人들이다.

이러한 匠人들을 통털어서 우선 私匠이란 이름으로 부르기로 한다.

일찍기 上院寺鐘을 鑄成한 昭南毛의 匠仕「大舍라든가 三國遺事에 보이는 皇龍寺鐘의 鑄匠 里上宅 下典 같은 사람들은 官匠이 아니고 貴族에 隸屬된 匠人들이나 上院寺鐘이나 皇龍寺鐘 같은 巨大한 作品을 남길 만한 力量있는 鑄匠들이다.

皇福寺石塔 舍利函의 匠 季生 闕溫이 鑄金匠인지 아닌지는 尙尙 斷定하기 어려우나 高麗時代에는 金山寺 香坑의 高正 以下 一八名の 이와 같은 匠人을 헤아릴 수 있다.

人名表(C)중에서 (7)(8)(11)은 (B)表(23)의 大匠 韓仲紱와 同一인이고 (19)別將同正 韓正도 大匠 職位를 가진 官匠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이 五名을 빼고 나머지 一七名이 一定한 職名이 없어 官匠이나 僧匠으로는 볼 수 없는 匠人들이다.

따라서 官匠도 僧匠도 아닌 이 사람들은 비교적 自由로운 處지에서 鑄金을 生業으로 삼고 있었던 私匠들이었다고 믿어지는 것이다.

四、鑄金匠의 社會

官匠의 社會

高麗 官匠들은 大匠이란 職名(位)을 冠하여 記名한 것이 大部分이다. 副匠이란 職位가 制度上으로 있었으나 副大匠 三大匠은 있어도 副匠某

로 記名한 예는 하나도 없다.

大匠이 되어야 單獨으로 한 作品을 鑄成할 수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大匠이라야 器物에 記銘을 할 수 있는 慣例였는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大匠이란 地位가 그 社會에서 어떻게 되는 것을 暗示하는 것 같다.

大匠 韓仲紱의 경우를 보기로 하면 康宗 二年(一一二二) 侍衛軍士、高宗 九年(一一二二) 匠、高宗 二五年(一一三八) 大匠의 順序로 승진하였다. 勿論 그 사이에 副匠이란 段階를 거쳤을 것이고 또 高宗 二五年以前에 大匠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나 現在의 資料로서는 이以上 밝힐 수가 없다. 또 「匠」이 武散階 給田規定의 大匠 副匠 밑의 雜匠人에 해당 하는 것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匠籍에 編戶된 工匠들은 匠副匠의 단계를 거쳐 大匠의 職位에 오르게 된다고 보아서 틀림 없을 것이다.

또 官匠들 중에는 別將同正이란 官職을 가진 예가 보인다.

韓仲紱가 같은 戊戌年에 鑄成한 神龍小鐘에는 大匠으로 또 福泉寺 飯子에는 別將同正으로 記名한 예가 있고 또 月峰寺鐘(高宗 一一年、一二二四)의 崔汶茂는 大匠別將同正으로 記名하고 있다.

鑄金匠으로서 官職을 冠한 예는 乙巳銘銅鐘의 別將同正 韓正을 합하여 三人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大匠이다.

이 세 사람은 大匠으로서 別將同正의 官職을 받은 官匠들이다.

官匠과 武散階

그러면 官匠이 어떻게 하여 別將同正이란 官職을 띠게 되는 것일까 便宣上 우선 「同正」부터 살펴 보기로 한다.

高麗의 同正(職)은 그 內容이 복잡하나 대체로 다음과 같이 解釋되고 있다.

(1) 年功이나 武功을 세운 吏屬 鄉吏 軍人에게 주는 名譽職으로서 그 職名 밑에 붙여서 부르게 하였다.

凡其人...其足丁限十五年半丁限十年立役 半丁至七年足丁至十年許

同正職 役滿加職(高麗史 卷七五 選舉志三)

(2) 赦의 一種으로 위로는 先王 先妃에 尊諡를 加하고 名山德川에는 德號를 加하고 文武兩班과 모든 有職者에게 次第로 同正職을 加한 例도 있다.

高宗四十年六月辛亥文武兩班南班雜路凡有職者加次第同正職(高麗史 卷二四 世家)

(3) 吏屬이나 品官이라도 蔭仕者인 경우 定員 以外的 添設된 人員으로서 同正職에 初任되기도 하였다. (李佑成, 高麗朝의 吏에 對하여. 「韓國史論文選集 Ⅲ」)

別將同正의 同正은 대체로 一種의 名譽加號로 생각하여 無妨하겠으나 이러한 加號는 文武 兩班階級에서는 쓰지 않고 주로 吏屬 軍人 工匠 등 下級階層에서만 名譽職으로 使用한 것 같다.

別將은 高麗時代의 京軍이나 州鎮軍의 各領에 所屬된 軍官의 職名이다.

國家之制近仗及諸衛每領設護軍一中郎將二郎將五別將五散員五伍衛二十隊正四十(高麗史 卷八一 兵志 一)

이 兵制를 보면 別將 밑에 伍(校)尉 隊正 등의 軍官 六〇名이 있는데 이들은 職制上 武官이라고는 하지만 통털어 六十이라 하여 一般 軍卒과 큰 差異가 없는 下級武官이었다⑥.

그러고 보면 別將이 비록 正七品の 武官이기는 하나 軍隊內에서는 實質의인 下級將校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軍隊의 別將에 대하여 긴 說明을 하였으나 鑄匠의 別將은 이와는 全然 性格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鑄匠들의 官職은 一見 軍職과 恰似하나 武散階라는 特殊한 位階에 屬하는 官職이다. 다만 그 對象이 軍役를 擔當하는 같은 階級이고 校尉나 別將이니 하는 職名까지도 同一하기 때문에 混同하기 쉬운 것이다.

사실 이 武散階에 對하여는 아직도 잘 모르는 部分이 많은 것 같으나 「高麗의 武散階는 文武兩班의 武班에 주는 位階가 아니고 老兵士 鄉吏

耽羅王族 女眞酋長 工匠 樂人 등 一般良民과는 다른 身分으로 軍役을 負擔하는 特殊階層에 주는 位階」⑦라고 보는 解釋에 따른다.

武散階

……成宗十四年定武散階凡二十有九從一品驃騎大將軍……正七品上曰致果校尉 下曰致果副尉從七品上曰翊威校尉下曰翊威副尉正八品上曰宣折校尉下曰宣折副尉從八品上曰禦侮校尉下曰禦侮副尉正九品上曰仁勇校尉下曰仁勇副尉從九品上曰陪戎校尉下曰陪戎副尉今以見於史冊者考之則武官皆無散階其沿革廢置未可考(高麗史 卷七七 志 百官二)

앞에서 잠시 言及한 食貨志의 給田規定에는 이 武散階를 五等級으로 나누어 給田額을 田三十五結에서 田二十結까지로 規定하고 그 끝에 田十七結에 大匠 副匠 雜匠人을 包含시켰다.

다음에 高麗史 食貨志三의 祿俸條에 보면 그 末尾의 「諸衙門工匠別賜」에서 工匠들의 祿俸이 規定되어 있다.

諸衙門工匠別賜, 並以役三百日以上者給之, 文宗三十年定. 軍器監米十石 皮甲指諭一, 牟匠指諭一, 和匠指諭一 七石……(下略)

이 祿俸規定을 鑄匠과 關聯이 있는 軍器監과 掌治署 所屬 工匠들의 祿俸을 一覽表로 整理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年三百日 以上 勤務한 者(事實上 常勤者)에게만 支給하는 祿俸이다.

軍器監

米十石(3)	〃七石(7)	〃六石(4)	稻十五石(4)	〃十二石(3)	〃十石(2)
皮甲匠, 指諭 一. 牟匠, 指諭一 和匠, 指諭一	皮甲匠, 行首漆匠, 左右行白甲, 行首大箭匠, 左右行皮匠, 指諭校 指諭副承旨 一 首校尉二 匠一 副尉一	鍊匠左右行首長刀, 行首副箭頭匠, 行首各一 匠一	弩筒副匠一 旗畫業, 行 首校尉一	副尉一	首校尉二 尉, 行首大匠
白甲匠, 行	折校尉一 和匠, 行首校 尉一	平匠, 行首宣二			

首副尉一 長刀匠、行首 陪戎副尉一 角弓匠、陪戎 校尉二				
--	--	--	--	--

掌治署

米十石(2)	七石(4)	六石(5)	稻十二石(4)
銀匠、指諭殿前一 和匠、指諭內殿前 一	銀匠、行首校尉二 和匠、行首校尉二	白銅匠、行首副尉 一 赤銅匠、副尉一 鐘匠、行首校尉一 皮帶匠、行首校尉 二	金箔匠、行首校尉 一、行首大匠一 生鐵匠、左右行首 大匠各一

이 表에 의하여 우선 알 수 있는 것은 祿俸이 그 職位階의 高下보다 工技의 種類에 따라 다르다는 것과 職名이 棼多樣하다는 것이다.

즉 그 官職名을 추려 보면 指諭承旨、同副承旨、指諭殿前、指諭內殿前、行首校尉、同副尉、行首大匠、同副匠、行首等참으로 複雜多樣하여 무엇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 率直한 告白이나 나름대로의 私見을 적어 보기로 한다.

指諭

高麗史에 많이 보이는 職名인데

中軍置兵陣都指諭及都將校五兵都指諭及將校都業師……亦各置都領及指諭 前後左右軍亦各置兵陣都指諭 神騎神步籍弩都領及指諭(高麗史 卷八一 兵志 五軍) 中軍에 兵陣都指諭를 두고 各級 軍位部隊 및 前後左右軍에도 兵陣都指諭와 騎、步、弩都領과 指諭를 두었다는 것이다.

이 記錄으로 본다면 軍隊의 指諭는 兵法과 兵術을 教育하는 參謀職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推測이 크게 어긋남이 없다면 工匠의 指諭도 官匠들의 技術學

習과 行政的인 調整을 맡은 官職이 아닐까?

指諭承旨 指諭殿前은 指諭의 補助者일 것이고 行首校尉 副尉는 指諭보다는 한층 낮은 階級일 것이다. 校尉중에서 가장 位階가 높은 것은 伴匠의 行首宣折校尉(正八品上)이고 가장 아래가 陪戎副尉(從九品下)인데 이 밖에 位階를 表示하지 않고 校尉 副尉로만 되어 있는 것은 陪戎二字를 省略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 階級 위의 仁勇校尉 同副尉 정도로 생각하여 無妨할 것이다.

行首大匠 行首(밑에 校尉 또는 大匠 二字欠?) 등은 校尉의 定員이 없기 때문에 그 系統 官匠의 行首로서 充當한 것 같다.

이와 같은 官職을 떤 二二名의 常勤大匠이 官衙와 官匠들 사이에서 그들을 統制하고 이끌어 나간 것이 아닌가 推測된다.

그런데 官匠들 중에서 校尉의 官階를 表記한 것은 靈通寺大覺國師碑(仁宗 三年、一一二五)「石匠校尉林且刻之」의 石匠의 例가 있을 뿐이고 鑄金匠으로서 아직 그 實例가 없다. 鑄金匠의 경우 大匠이란 職名에 官階를 붙인 예는 「大匠 別將同正」뿐이고 또 大匠과 別將同正을 同時에 양질로 사용한 것은 韓仲鉸의 例가 있을 뿐이다.

校尉의 位階에 있는 官匠들은 官衙의 祿을 먹고 있기 때문에 寺院이나 個人의 注文에 應할 수가 없었거나 아니면 校尉라는 位階가 軍隊의 경우처럼 實質的으로 軍卒과 大差없는 存在이기 때문에 잘 쓰지 않고 그 보다는 무개가 있는 大匠이란 職名을 冠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고 보면 大匠 別將同正을 併記하거나 大匠과 別將同正을 양질로 稱하는 別將同正 程度였을까?
同正이 名譽加號임은 앞에서 言及한 바 있으나 別將이란 官職은 祿俸

規定에 아무런 記錄이 없다.

이 規定이 制定된 뒤에 校尉階의 官匠을 특별한 경우 八品이나 七品으로 位階를 올려서 軍職의 階級과 같이 別將으로 優待하게 된 것이 아닐까?

高麗史 選舉志三 限職條에 보면

文宗七年十月判樂工有三四子者以一子繼業 其餘屬注膳驅吏 轉陪戎副尉校尉
限至耀武校尉

工匠들과 거의 같은 地位에 있는 樂工의 子도 陪戎副尉에서 耀武校尉
(正六品上)에 까지 昇進할 수 있는 筈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또 時代는 若干 내려가지만 忠烈王 때에는 國用이 不足하여 納銀拜官
의 制度까지 생겨서 軍人의 경우 校尉에서 散員을 바라는 者는 銀四斤,
散員으로 別將을 바라는 者는 銀二斤을 바치도록 한 일도 있다.

納粟補官之制 忠烈王元年十二月都兵馬使 以國用不足 令人納銀拜官……軍人望
隊正 隊正望校尉者三斤 校尉望散員者四斤 散員望別將者二斤……

(高麗史 卷八〇 食貨志 三)

이와 같은 便法은 軍隊內에 限定된 것이고 다른 官匠社會에는 없었다
고 斷定하기 어렵고, 또 忠烈王 元년에 갑자기 생긴 法이라고 하기 보
다는 以前부터 部分的으로 내려오던 것이 이때 表面化한 것으로 보는 것
이 自然스럽다 하겠다.

文宗 三〇年(一〇七六)에 制定된 工匠別賜에 보이는 工匠들의 官職이
高宗時代까지 近二〇〇年 동안 變動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그동안 時代가 내려감에 따라 形式上으로나 內容의으로 相當한 變化
가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리하여 高麗末의 重興寺 靑銅縷銀香爐
(忠惠王五年, 一三四四)에는 (銀入糸)縷手의 中郎將 金卿같이 別將보다
더 높은 官職을 띤 官匠까지 나타나게 된 것이다.

官匠과 軍役

高麗時代의 州鎮軍에는 「梗」이란 單位의 工匠部隊가 編成되어 있었다.

安邊府 都領一 別將二 別將四 校尉十二 隊正二十七 抄軍左右軍各八隊 寧塞軍三隊
五人 計百五十 工匠一 梗計三十三人 (高麗史 卷八三 兵志三 州縣軍)

京軍의 編制에는 이러한 工匠部隊가 보이지 않는데 開京에는 各官衙
에 所屬된 官匠集團이 있었기 때문에 別途로 工匠隊를 編成할 必要가 없

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工匠隊는 地方 州縣에 所屬된 一種의 官匠隊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元來 軍隊에 編入된 軍卒이나 匠籍에 編入된 工匠들은 다 같이 軍役을
擔當하는 賤民階級으로서 넓은 意味의 軍人들이다. 武散階의 位階가 軍
隊式으로 되어 있는 理由의 하나가 이런 데에도 있는 듯하다.

官匠의 性格과 그 社會를 理解하는데 軍役과의 關聯은 無視할 수 없는
重要な 일인 듯하다. 앞으로 軍制史 研究의 側面에서 工匠隊의 性格이
좀 더 밝혀지기를 期待하여 보기로 한다. ⑧

私匠의 社會 — 京師工人之家 —

私匠들의 身分

私匠들은 어떠한 身分의 工匠들이며 또 어떠한 環境에서 生産活動을
하였을까 하는 問題에 대하여 柳敎聖敎授는

「……農村에 있어서 半農半工 家內工業이 成長하여 專業으로 轉換된
者 宮廷내지 貴族의 手工業者에서 賃用勞工으로 轉換된者 歸化民으로
서의 投化匠中에서 獨立工匠으로 分化된 者들이고 이들 私營工匠들은
規定된 國家의 上番徭役 以外에 每年 常貢과 別貢의 形式으로 貢物을
上納하였던 것이며 또 그들 중에는 소위 工匠隊로서 兵役에 從事한者
도 있었다」고 하였다.

開京에 이러한 私匠들의 集團이 있었다는 것은 壬子銘 安養社 飯子(高
宗三九年, 一二五二)의 銘文中 「京師工人家 鑄成」의 句節로서도 證明
된다.

「……壬子四月十二日在於京師工人家中鑄成安養社之飯子……」

이러한 私匠들의 社會는 官匠이나 僧匠들의 社會와도 密接한 關聯이
있었다고 생각 된다. 「京師工人之家」에서 鑄成한 飯子에 官匠인 韓仲敎
가 그의 官職까지 冠한 記名을 새겼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나는 韓仲敎 自身이 바로 「京師工人之家」의 出身이었기 때문이라

고推測한다. 當時 韓仲紱는 그 社會를 代表하여 記名할만한 出衆한 存在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보면 韓仲紱가 일찌기 一介의 侍衛軍士로서 壽寧宮主房의 飯子를 鑄成하게 된 理由도 스스로 풀리게 되는 것이다. 그가 「工人之家」의 出身이었으므로 軍職으로는 一介 軍士에 지나지 않았으나 鑄金에서는 相當한 技倆을 가진 匠人이었기 때문에 宮主房에 配置되었던 것으로 생각하여도 좋은 것이다.

이러한 私匠들의 大多數는 身分上으로 工匠案에 附籍된 賤民들이나 中等에는 農民에서 轉入한 良民도 있었고 또 官匠에서 풀려난 老匠도 있었을 것이다. 高麗末에 가서는 功臣의 子孫까지도 賤技로서 工、商、匠、樂에 떨어진 자가 있었다고 하였다.

忠宣王即位數曰……凡功臣子孫以賤技落在工商匠樂者 推明許通……
(高麗史 卷七五 選舉志三)

鑄金匠 人名表 (C) 泰和二年銘 蒲溪寺盤子の 鑄匠 京良工 韓宗守의 경우 「京良工」의 「良」字가 良民이라는 身分의 表示인지 京師의 工人에 美稱으로 붙인 것인지는 이 資料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아마 自己 스스로가 良工이라고 쓰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니 이것이 前者의 뜻 즉 身分上 良民의 뜻이라면 私匠 社會의 一面을 反映한 資料가 될 것이다.

私匠들 중에 良民도 섞여 있었다는 것은 確實하나 그들만의 社會를 따로 形成하고 있었다고는 생각 되지 않는다. 오히려 工房의 運營資材의 融通 技術上의 協力등으로 匠籍을 가진 私匠들과 不可分의 關係에서 그 社會生活은 兩者가 거의 差異가 없었다고 推測하는 것이 自然스러울 것 같다.

鑄金匠의 繼業

앞에서 私匠들은 비교적 自由롭게 生産活動을 할 수 있는 私營工匠들이라 하였다. 그러나 그 自由라는 것도 官衙나 軍隊에 直接 隸屬된 工匠이 아니라는 뜻이고 良民 아닌 大多數의 私匠들은 匠籍에 編戶된 隸

民들임에는 다를 바가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匠人들은 制度上으로나 社會적으로 父祖 傳來의 身分과 職業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다른 모든 種類의 工匠들과 마찬가지로 子孫에 傳해 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우선 家業인 鑄金을 專業으로 하여야 하고 또 그것을 子孫에게 물려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文宗)二十七年正月有司奏 按令典 工商家執技事上 專其業 不得入仕與士齒 軍器注簿崔忠幸 良醜令同正梁揮 並工人外孫 別將羅禮 隊正禮 順亦皆工人嫡孫 自恭九流 去其所業 已登朝行 不可復充工匠 乞各限時職……

(高麗史 卷七五 選舉志三)

家業의 繼承에 대하여는 直接 鑄金匠에 관한 資料는 아니나 樂工의 一子 繼業의 記事가 하나의 參考가 될 것 같다.

文宗七年十月判 樂工有三四子者 以一子繼業 其餘屬注膳幕士驛史 轉陪戎副尉 校尉限至曜武校尉 (高麗史 卷七五 選舉志三)

樂工의 경우 같은 賤技라도 工匠보다 한층 낮은 待遇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유독 樂工에 대하여서만 이러한 特別待遇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다른 工匠들의 예에 따라 樂工들에게도 뒤늦게 이러한 措置를 한 것으로 짐작되는 것이다.

鑄金匠의 繼業에 대한 記錄이나 資料는 별다른 것이 없으므로 作品에서 그 端緒를 찾는 道理밖에 없을 것 같다. 즉 새로운 遺物과 銘文의 出現에 期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既存 遺物에 대하여도 그 樣式的인 研究가 더 深化되어야겠다는 뜻이다.

鑄金作品의 形體、文樣의 樣式、鑄金作業의 技術的인 分析등을 通하여 同一母範의 遺物이나 또 그 部分的인 異同을 가려서 그 系譜를 찾는 作業이다. 一例를 들면 前述 神龍(寺)小鐘에 새겨진 菩薩坐像 四軀中 二軀는 같고 나머지 二軀는 細部に 若干 다른 점이 있고 또 福泉寺 飯子の 五朶의 飛雲文도 一見 同一紋 같으면서 자세히 보면 하나 하나가 조금씩 다른 文樣이다.

「京師工人之家」의 工房에는 이러한 器形이나 文樣의 原型 또는 그 圖

本」이 各樣 各色으로 具備되고 傳承되었던 것을 짐작케 한다.

坪井良平氏는 「蠟形鑄物の製作過程에서 鐘體에 새겨지는 上下帶、撞座、天人像等の 文樣이 地紋板에 依하여 만들어졌으며 그것을 朝鮮鐘의 上下帶、乳廓帶、撞座、天人像 등에서 볼 수 있다. 「하여 이러한 同一地紋板을 母範으로 製作된 韓國鐘 九例를 다음과 같이 指摘하였다. ⑩

①(興海)退火郡 大寺鐘(沖繩 波上宮 亡失)과 岡山縣 觀音寺鐘의 天人像과 撞座

② 河清部曲 北寺鐘(佐賀縣 惠日寺鐘과 肥前 勝樂鐘)의 上下帶、乳廓帶、天人像、撞座 및 銘文 ⑪

③ 太平十年銘鐘(大阪府 鶴瀨寺)과 河清部曲 北寺鐘의 上帶、乳廓帶、天人像、撞座

④ 福岡縣 圓清寺鐘과 同縣 水城院鐘의 立狀蓮瓣帶、上帶、下帶、乳廓帶、天人像

⑤ 東京 廻眞寺鐘(島根縣 天倫寺)과 福岡縣 安養寺鐘의 立狀蓮瓣帶、上帶、乳廓帶、乳座、撞座

⑥ 兵庫縣 尾上神社鐘과 東京 廻眞寺鐘의 乳廓帶와 乳座、天蓋와 佛像、樂器列

⑦ 清寧四年銘鐘과 善慶院鐘(在日本)의 立狀帶의 線形突起、上帶、下帶

⑧ 傳扶安出土鐘(扶餘博物館藏)의 下帶와 清寧十年銘 戒持寺鐘(福岡縣 承天寺藏)의 乳廓帶

⑨ 全南大學鐘(光州 栢川寺址出土)과 中央博物館鐘(六一八二號)의 上帶、下帶

同氏는 以上 九例中の ⑦ 清寧四年銘鐘과 善慶院鐘은 그 銘에 의하여前者는 文宗一二年(一〇五八)、後者는 熙宗二年(一一〇六)의 鑄成으로 그 사이 一四八年동안이나 같은 地紋板이 繼承 使用된 점을 指摘하였다.

國內外에 散在하는 모든 鑄金作品을 細密하게 檢討하면 同一母範 乃至 同一文樣의 作品은 더 많이 檢出될 것으로 생각되며 同時에 鑄金匠社의 人脈이나 技術의 繼承問題도 어느 程度 그 실마리가 잡힐 것으로

민는다.

僧匠의 社會

끝으로 僧匠들의 社會에 대하여 言及하여야 하겠으니 여기에는 사실 別다른 資料가 없는 것이다.

新羅時代부터 큰 寺院에는 技藝로서 佛法을 護持하고 寺院의 施設이나 諸般 佛事를 뒷 받침한 各種의 僧匠集團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僧匠들은 그때 그때의 官匠의 職名에 準하는 이름—伯士·大匠—으로 불리고 그들 사이의 法統에 따라 師資相承하여 적어도 高麗時代까지는 그 傳統을 이어온 것이 分明하다.

그러나 그들의 僧侶生活이나 生産活動이 寺院에 限定된 特殊한 社會를 이루었고 또 그 傳統을 오늘까지 傳하여 온 것도 佛畫·丹青·造像 등 극히 一部分에 不過한 實情이다.

그러므로 이 僧匠社會의 實像은 佛敎史의 側面에서 究明되기를 期待하는 도리 밖에 없을 것 같다.

五、맺고말

高麗時代의 鑄金遺物中에서 韓仲紱라는 鑄匠의 作品이 五點이나 檢出된 것은 뜻하지 않은 所得으로 이 小考를 쓰게 된 動機가 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단 五點의 作品만으로 그 鑄匠의 行績이나 그의 背景 즉 鑄匠들의 社會를 살펴본다는 試圖는 좀 지나친 冒險이라고도 할 것이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鑄金匠 韓仲紱의 實像 아닌 虛像이 그려졌는지 모르겠다.

高麗의 鑄金作品은 一般的으로 資料가 零星한 韓國美術史中에서도比較的 遺物이 豊富한 편이고 앞으로 새로운 資料의 出現을 期待할 수

있는分野이다. 또 現存의 資料에 대하여도 그 하나 하나에 研究調査의 餘地가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새로운 資料를 加하여 樣式上의 發達過程이나 技術의 傳承 같은 側面이 좀 더 밝혀져서 本考의 未恰한 點이 補完되기를 期待할 뿐이다.



靑臯大寺鐘原名

- ① 黃壽永 編著「韓國金石遺文」一九七六年刊 서울 一志社
- ② 至正四年銘 重興社 靑銅縷銀香爐—奉恩寺所藏—의 銘文에는 「：縷手中郎將金郷」의 例가 있다. 中郎將이 軍職이라면 正五品의 武官이나 鑄金匠에는 이와 같은 높은 官職者를 볼 수 없다. 別將同正에 對하여는 四. 「官匠의 社會」 參照
- ③ 黃壽永〈新羅高麗 在銘禁口考〉—海圓黃義敦先生 古稀記念 史學論叢—
- ④ 藤田亮策〈高麗鐘의 銘文〉「朝鮮學報 第一四輯」
- ⑤ 坪井良平「朝鮮鐘」一九七四
- ⑥ 李基白「高麗兵制史研究」〈高麗 軍班制下の 軍人〉(一九七九 一潮閣)
- ⑦ 旗田巍〈高麗의 武散階〉朝鮮學報 第二二・二二合輯.
- ⑧ 李基白 前掲書〈高麗 州鎮軍研究〉
- ⑨ 劉敎聖 韓國商工業史「高麗時代의 商工業—韓國文化史大系Ⅱ 一九六五
- ⑩ 坪井良平「朝鮮鐘」〈朝鮮鐘의 鑄造〉一九七四.
- ⑪ 坪井良平 前掲書에는 巨濟 河清部曲 北寺鐘의 同銘異鐘 二座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釜山市立博物館長)

朝鮮時代分院의 成立과 變遷에 관한 研究(一)

—廣州一帶 陶窯址를 中心으로—

尹 龍 二

I、序 言

京畿道 廣州郡 一帶는 司窰院의 沙器製造所로서 分院이 朝鮮時代 初期부터 成立되어 末期에 이르기까지 영위되었으며 朝鮮時代의 모든 種類의 陶磁器를—白磁、白磁象嵌、靑磁、靑磁象嵌、靑華白磁、鐵繪白磁、辰砂白磁、粉靑沙器—등이 製作되었던 수많은 陶窯址가 구릉 위에 有存하고 있다.

이처럼 廣州一帶는 朝鮮時代의 分院이 集中的으로 營爲되었으므로 이 곳의 調査研究는 朝鮮時代 陶磁器의 核心을 體系的으로 研究하는 일이다. 廣州一帶의 陶窯址를 보다 세밀히 調査해 간다면 時代에 따른 陶磁器의 製作場所、製作方法、器形의 變化、陶窯의 構造、 나아가서는 沙器製造所로서의 分院의 變遷 등 朝鮮時代 陶磁器 全般의 變遷과정을 보다 확실히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었다.

실제로 廣州一帶의 陶窯址 調査를 통해 새로운 많은 陶窯址를 찾아낼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새로운 事實을 파악할 수 있었다.